

/지역 단신/

화순경찰 '장애우 하계수련회' 봉사



화순경찰서(서장 노병현) 소속 경찰관 및 전·외경 20여명은 지난 13일 남평 장전유원지에서 정신지체 장애아 원생들의 하계수련회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장전유원지를 찾은 경기도 용인 '청소년의 집' 원생 50여명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 장애인들에게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심어줬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고흥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고흥군이 전남지역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르면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생해보험, 상해보상보험으로 구성된 '필수 기본항목'과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또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해 정하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한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 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시행안이 마련되면 연간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 시행하게 된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장성 미생물제제 살포 연시회



장성군은 지난 14일 장성을 친환경쌀생산단지 안 평지에서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를 이용한 미생물제제 살포 연시회를 개최했다.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는 하루 작업량이 5~10ha에 달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덜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 관리기는 친환경 미생물제제인 영양제, 미생물, 목초액 등을 혼자서도 살포할 수 있다

장성군은 고품질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농자재 보급에 나서고 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

전남도, 공무원교육원→舊 장흥대학 이전 발표 차일피일 주민들 “이전 약속 지켜라”

장흥군 “도지사 선거 공약” 道 “내달초 구체방안 제시”

전남도가 지난 5·31 지방선거 직후 도입 남도대학 장흥캠퍼스(구 장흥대학)를 공무원교육원 이전 대상으로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999년 6만7천800평(연건평 4천여 평) 규모로 문을 열었던 도입 남도대학 장흥캠퍼스는 2005년 회계연도를 끝으로 신입생을 받지않아, 지금은 학생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변해 버렸다.

전남도는 담양대학과 장흥대학 등 2개 도입대학을 운영하는데 따른 재정 압박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입생 유치 어려움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대학을 통합·운영해 왔으며, 학생을 받지 않는 장흥캠퍼스 건물과 부지를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남도대 장흥 캠퍼스가 있는 장흥군과 사회단체 등도 '전남도 내 중남부권의 소외를 해소하고, 전남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장흥캠퍼스를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해줄 것을 전남도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그러나 5·31 선거 당시 '장흥캠퍼스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흥군을 전국 생약초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관련, 전남도가 장흥캠퍼스 부지를 '한방(천연)자원 연구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장흥지역민들은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장흥지역 주민들은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매년 5천여명에 육박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장흥에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치적 이유로 교육원 이전부지를 저품질할 것이 아니라 전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박 지사가 장흥캠퍼스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현재 장흥캠퍼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초에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난 79년 8월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문을 연 이후 매년 도 산하 4천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 4천만원대 120년생 소나무 고사 위기

郡, 수액투여 등 살리기 나서

강진군 삼전면 금당마을의 수령 120년생 소나무(사진)가 고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용이 승천하는 듯 뒤틀린 모습을 한 높이 10m, 폭 5m, 둘레 1m의 금당마을 소나무는 지난 1980년대 도 건설업체가 4천만원에 팔라는 제의를 했을 정도로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다.

최근까지도 2천만원대에 팔라는 조경회사들의 요구가 계속됐으나 주민들은 마을의 상징인 소나무 판매를 거부해 왔다.

금당마을 소나무가 고사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년전부터. 지난 1980년 경지정리 사업이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가지가 고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따라 강진군은 지난 8일부터 해남군 푸른나무병원에 의뢰, 수액을 투여하는 등 소나무 살리기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역의 상징인 금당마을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해남서 잇단 전국대회

9월 17~22일 중별탁구

10월말 고교축구연맹전 등

郡, 120억 투입 대회 만전

해남군이 대단위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은 9월과 10월 탁구, 축구 전국대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문화관광부 장관기 제39회 전국 남녀중별탁구대회'는 전국 118개 초·중·고·대학팀 1천10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치르게 된다.

또한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전국 고등부 1,2학년 고교 축구연맹전'을 신설, 해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90개고교 2천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할 고교 연맹전은 2억2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기로 TV중계를 통한 광고수입도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단위 경기를 개최함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경기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축구대회에 맞춰 3개월을 9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궁도장, 농구장, 족구장, 씨름장 등 체육경기 전반의 경기장을 모두 갖출 계획이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받아 짓게될 수영장은 군비 10억원을 보태 25m 6개라인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광양시청 뒤 광장부지

시민휴식공간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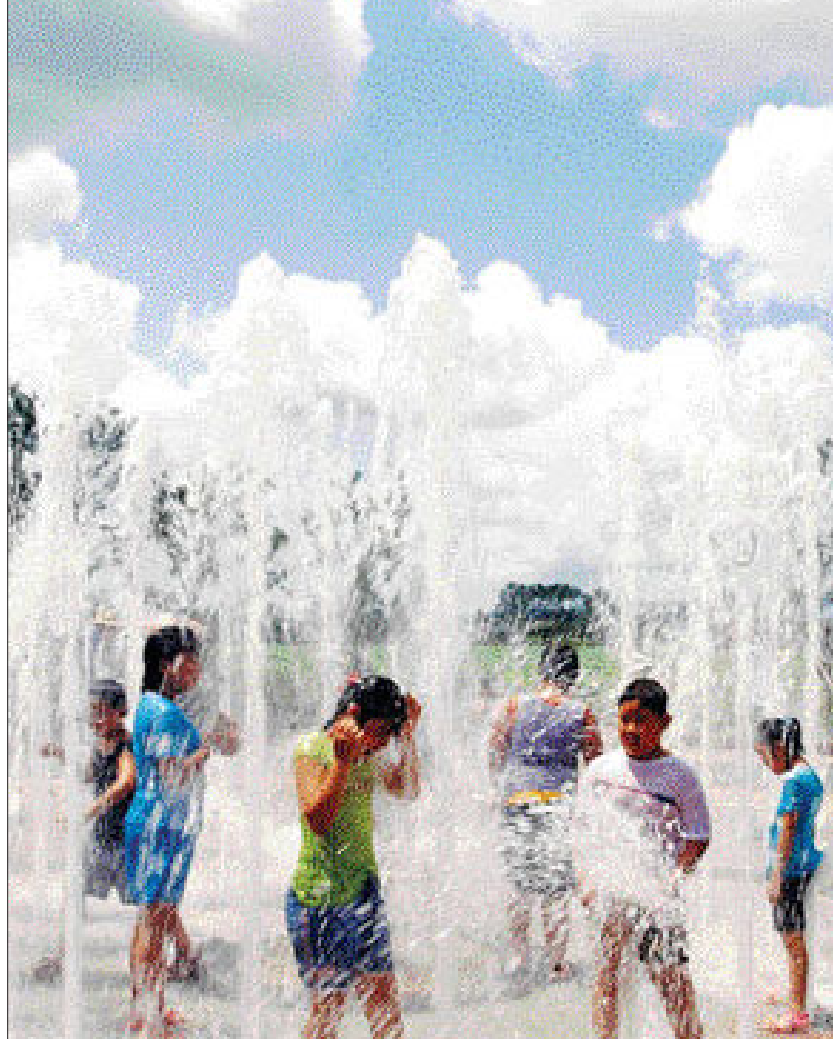
그동안 임시운동장으로 사용돼 오던 광양시청 뒷편 2천여 평의 광장 부지가 체육, 편익,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친환경적 시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양시가 9억5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시민휴식광장은 농구장, 조깅코스, 배드민턴장 등 체육편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 휴식을 위한 파고라, 관람석과 가시나무, 소나무 등 13종 5천여주의 조경수가 식재됐다.

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시설이 설치돼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시민들의 밤 시간대 이용이 급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더위야! 조금 쉬면 안되겠니



15일 무안군 일로읍 화산백련지를 찾은 어린이들이 빗뚱 더위를 건디다 못해 노천분수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나주배농협 상반기 경영 악화

순자본비율 기준치 4% 밑돌아

나주배농협동조합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배농협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시(假)결산 결과 순자본비율이 3.83%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4%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말 순자본 비율 역시 4.22%로 6개월만에 0.39%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외상으로 판 자체대금 미회수 등 부실채권이 20억원에 이른데다 탈퇴 조합원 증가, 신용사업 부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나주배농협은 부실채권 회수, 경제사업 증대, 출자금 증대, 운영비 절감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데다 조합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출자금 증대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나주배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연말까지의 순자본 비율을 4%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농촌 여건이 힘든 만큼 대부분 농협이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나주배조합의 연간 취급액은 신용과 경제사업을 합해 1천300억원 규모며 나주와 영암 등 농민 3천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총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인 순자본 비율이 4% 이하로 떨어질 경우 통합과 재무구조개선 등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여수시-EML·GDC와 손잡았다

〈모델업체〉 〈광주디자인센터〉

'2012박람회' 홍보 공동보조

여수시가 2012 세계박람회 유치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17일 세계적 모델업체인 EML(Elite Model Look) 한국지사과 홍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EML한국지사에서는 2012세계박람회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탑 모델들의 박람회 홍보대사 역할 수행과 2012년까지

EML 한국대회와 지역 대회를 정기적으로 여수에서 개최하고 2007년 아시아대회 및 2012년 세계대회 여수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수시는 또 도시 디자인 개발을 위해 16일 광주시 산하 광주디자인센터(G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따라 디자인센터측은 도시환경 디자인 분야 개발 및 기술교육을, 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pkpark@

“고향 후배 위해 써 달라” 익명 50대 1천만원 기탁



익명

○익명의 50대 중년 남자가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해 화제.

○지난 14일 순창 육천인재육성을 찾은 초라한 행색의 50대 중년 남자는 담양직원에게 “고향 후배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을 주고 싶다”며 흰 봉투를 전달.

○이 중년 남자가 건넨 봉투에는 1천만원이 담겨 있었으며 “팔덕면이 고향으로 전주고, 서울공대를 졸업했으며 고향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인재로 자라길 바란다”는 말만 남긴 채 끝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서울로 상경했다는 것.

/순창=이흥식기자 hsllee@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중심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수향 관광호텔 이리힐하우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신선한 고급재료, 깔끔한 음식맛